



## 해외농약뉴스

지난해 이어 2% 실질성장 예측

# 1996년도 세계농약시장 여건과 전망

유전자조작 작물첫선, 무경운재배면적 확대등 변수

Wood Mackenzie가 농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6년도 농약시장은 95년에 이어 지속적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세계 주요지역의 경지확대에 따라 시장도 그만큼 활기를 띠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96년 세계농약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①유럽의 재고율 10%수준으로 감소 ②옥수수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지면적 증가 ③북미지역의 무경운(無耕耘)재배면적 확대 ④동아시아지역의 다양한 식품요구 지속 ⑤복제품 농약으로 인한 농약간 경쟁 ⑥전세계적인 낮은 곡물재고와 높은 농산물 가격 ⑦유전자조작 작물의 도입 등을 꼽고 있다. 94년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95년도 세계경제의 성장폭은 줄어들었다. 96년도에도 세계주요시장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지난해 GDP 성장률 2.7%에서 올해는 2.4%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관심을 끄는 지역은 지난해를 실망 속에 보낸 독일이다. 프랑스에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영국은 지난해에 수출하락을 경험했다. 미국은 소비자의 수요가 늘면서 완만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은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현재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다. 이들 주요 동아시아 나라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서 발생한 한가지 결론은 식생활문화의 향상이다. 이는 식량공급에 영향을 끼쳐 양질의 곡물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95년 G7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2.5%인 반면 이들지역은 3.9%의 성장을 보였다. 우드메켄지의 예측이 빗나갈 만큼 지난해 서유럽과 미국의 시장은 커졌다. 세계의 곡물재고는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곡물수요가 예상보다 커졌다. 그 결과 재배농가의 수입은 증가되었고 특히 북유럽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경지면적 확대될 것

올해 서유럽지역은 농산물 가격상승과 농가수입증대에 따른 효과에 힘입어 농약시장이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지만 경지면적의 증가도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병해충의 대량발생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약시장은 농가의 수입, 농산물 가격, 경지면적의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미국의 농약시장은 중서부지역에서 옥수수 재배면적이 대두 재배면적에 뒤진 것과 함께 날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옥수수 수확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무경운(無耕耘) 재배가 늘고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올해도 무경운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의 사용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도 오르는 추세이며 옥수수의 가격도 상승이 예상된다. 또 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캐나다의 밀 재배면적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노동력 부족으로 농약수요 늘어

대만과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시장은 지난 몇년간과 마찬가지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다. 중국의 농약사용량은

최근 6년간 세계농약시장 규모

(단위: 백만 \$,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시장규모	26,400	26,800	25,200	25,280	27,825	30,265
전년대비	0	-2.0	-5.1	-1.7	+2.9	+5.0



## 해외농약뉴스

정부가 곡물생산을 주도하려는 증가될 것이며 도시노동자들의 수입이 늘면서 다양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걸쳐 농약수요가 증가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업노동력의 부족이다. 일본과 대만의 농약시장은 비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이들지역의 농약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부족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CIS(구소련)시장은 거의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EU와의 무역을 통해 중유럽에서는 소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인도에서는 쌀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약 판매는 소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프리카 시장은 여태껏 불황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증대가 예상된다.

### 복제품농약, 농약가격에 큰영향 줄 것

국가별 상황, 재배작물의 변화와는 별도로 농약시장을 신장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지난 몇년간 복제품 농약은 세계시장 곳곳에 퍼져있고 세계적으로는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지역별 국가별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는 복제품 농약은 이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

치고 있으며 생산과 수출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중단 기적 전망을 해보면 특정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복제품 농약이 농약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분명한 것은 중국과 인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ں 점이다.

1996년은 유전자조작작물(genetically engineered crops)이 농약시장에 첫선을 보이는 해이기도 하다. 세인의 관심속에 소개될 유전자조작작물은 글라신인 처리된 대두, 비티균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면화와 옥수수이다. 대두와 옥수수는 몬산토가 시장에 내놓을 전망인데 이는 미국에서 대두의 제초제, 면화와 옥수수의 살충제 시장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들 작물은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에 맞춰 생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도 재배될 수 있도록 생산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작물이 도입되더라도 큰 이익은 예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올해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시험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국, 동아시아, 유럽지역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계농약시장은 전체적으로 2%정도의 실질성장이 예상된다. **농약정보**

## 시바와 산도스 합병, 「노바티스」로

스위스의 시바가이거, 산도스 양사의 최고경영위원회는 3월7일부로 두 회사를 동등한 조건으로 합병하여 NOVARTIS라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고 4월 주총을 통해 발표했다.

노바티스의 사장에는 시바의 현회장인 알렉스 그라와(64)씨가, 사장겸 경영위원장은 현 Sandoz Pharma의 최고경영책임자인 다니엘 바세라(43)씨가 취임했다. 의약,농업,식품의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노바티스의 매출액은 2백60억 스위스프랑이다. 이 중에서 의약은 1백53억 스위스프랑으로 세계의 4.4%를 차지하며 세계3위이다. 농약은 70억 스위스프랑으로 2위의 아그레보와 듀폰보다 각각 27억 스위스프랑 많다. 식품의 매출액은 36억 스위스프랑이다. 새 회사의 주식은 산도스가 55%, 시바가 45%를 보유한다. 25년전의 시바와 가이거의 합병에 이은 대병합이지만 그 의도는 의약을 살리는데 있다고 한다.

## 일본농약, 대만에 합병회사 설립

日本農藥은 日商岩井 및 대만회사인 佳農貿易과 공동으로 농약의 수입과 판매를 전담할 합병회사 日佳農葯股份有限公司를 설립, 3월20일 대만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4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이 합병회사의 총자본금은 4천만 대만달러로 日本農藥이 43%, 日商岩井이 14%, 佳農貿易이 43%의 지분을 갖고있다.